



내 맘대로 골라라 골라맨 7_호수 괴물의 미스터리

원제 CHOOSE YOUR OWN ADVENTURE (THE LAKE MONSTER MYSTERY)
글 새년 길리건 | 그림 키스 뉴튼 | 옮김 신수진 | 출간일 2015년 9월 29일
ISBN 978-89-6548-251-2(74840) / ISBN 978-89-6548-244-4(세트)
무선제책 · 변형판 165x210mm · 본문 68쪽 | 초등 저학년 | 가격 7,500원

전 세계 어린이책 베스트셀러 4위, 「골라맨」 시리즈 7권 『호수 괴물의 미스터리』 출간!

책 읽기에 푹 빠지게 하는 단 하나의 게임 북! -《Mr. Colin Lewis(영국)》

내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다. -《Roger(독일)》

전혀 다른 결말! 스토리텔링에 생기는 폭풍 자신감! -《살구주스(한국)》

전 세계에서 2억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초대형 어린이 베스트셀러 「내 맘대로 골라라 골라맨」(이하 「골라맨」)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골라맨」은 「해리 포터」, 「구스범스」에 이어 세계에서 4 번째로 많이 판매된 어린이 책 시리즈로서, 총 38개국에 번역되어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골라맨」 시리즈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은 독자가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고르는 물플레잉 게임처럼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배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결말은 총 8가지! 어떤 결말을 맛보느냐는 온전히 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택지에 적힌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번에 출간된 『골라맨 7. 호수 괴물의 미스터리』에서는 거대하고 신비한 호수에서 펼쳐지는 괴물 찾기 대모험을 이야기한다. 이 모험의 배경은 실제로 괴물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유명 관광지, 미국의 챔플레인 호수다. 이 호수에는 몇백 년 전부터 공룡을 닮은 괴물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제껏 괴물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작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사진만 무성할 뿐이다. 좀처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호수 괴물 ‘챔프’. 이 괴물은 과연 진짜로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정확히 어떻게 생긴 괴물일까? 호기심과 궁금증을 듬뿍 자아내는 이 괴물을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찾아보자! 비밀스럽고 신비한 존재인 괴물 ‘챔프’를 찾는 여정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짜릿한 경험을 안겨 줄 것이다.

● 호수 속에 사는 비밀스러운 괴물 ‘챌프’
기필코 내가 찾을 테야!

주인공 ‘너’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동네의 챔플레인 호수로 놀러 간다. 이 호수에서는 괴물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사람 눈에 띄면 곧장 물속으로 숨어 버리는 은둔형이어서 이제까지 챔프와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사촌 한나와 함께 카누를 타고 챔프를 찾아 호수 이곳저곳을 누빈다. 챔프를 찾기 위한 힌트는 단 세 가지뿐이다.

힌트 1. 무척 얇전하고 겁이 많다. 사람 옆에 오는 것을 무서워한다.

힌트 2. 머리는 크고 비늘로 덮여 있으며, 목은 호리호리하고, 몸통은 뱀처럼 길다.

힌트 3. 물개와 공룡을 합쳐 놓은 듯한 외모다.

이 신비롭고 기묘한 괴물 ‘챌프’를 찾으려면 거대한 호수의 어디쯤으로 가야 할까? 챔프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음껏 이야기를 골라 보자!

챔프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 근처 아늑한 곳으로 간다면? 유명이 살 법한 으스스한 집이 딱하니 나타난다! 혹시 그 집 안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가 보자. 으스스한 집으로 들어가기 싫다면 호수 한가운데에서 낚싯대를 물속에 담그고 챔프의 반응을 기다려도 좋다. 찌릿찌릿, 입질이 느껴진다! 너는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데……. 그 정체는?

사람들이 챔프를 본 적 있다는 마을 근처로 간다면? 이런, 가는 도중 핑음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카누가 뒤집혀 너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가 하면, 번갯불에 정신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이제 그만 챔프 찾기를 포기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갈등하는 사이 호수 물 밖으로 정체 모를 존재가 나타나는데……. 과연 챔프일까, 아닐까? 네가 알고 있던 힌트는 사실일까? 그 결과는 네 선택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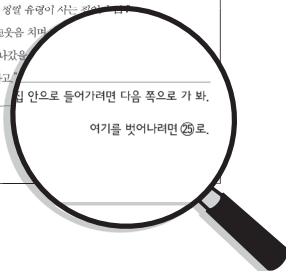
만약 챔프를 찾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우연히 맞닥뜨리는 엄청난 사건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호수 여신을 만나거나, 에메랄드 보석을 발견하는 행운을 맛볼 수도 있다!

손에 땀을 쥐는 재미를 만끽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당장 카메라를 챙기고 물 위에서 출렁이는 카누에 올라타자!



15

“한나! 저 집 안에 들어가 보자!”
한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그래, 좋아. 피곤했는데 마침 잘됐다.”
너는 계속 노를 저어, 모래사장에 다다르자 카누에서 내
뒀어. 그러곤 카누를 끌어 땅에 올려놓았지.
낡은 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
와. 끼익, 기분 나쁜 날카로운 소리도 들리. 그런데 그때,
이 층에 있는 오래된 문턱이 흔들릴지언정 내 코앞으로
떨어지지 않아! 너와 한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를 쳐
다봤어.
“어머, 실목해라! 정말 유명이 사는 집이구나!”
네 말에 한나는 코웃음 치며
“그냥 바람이 지나갔을
화에나 나오는 거라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음 쪽으로 가 봐.
여기를 벗어나려면 ㉞로.



● 먼저 읽은 어린이들의 한 줄 서평

- 순식간에 5가지 결말을 맛봤어. 결말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 - Timmy(7살)
- 난 이 시리즈 너무 좋아. 완전 멋져.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책이야! - Abigail(8살)
- 이 책을 읽으면 완전 빠지게 된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팡! - Ben(9살)
- 이야기를 고르기 전에 엄청 고민하게 될 거야. - Hasan(9살)
- 스텔이 넘치고 내가 이야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서 좋아! - Molly(9살)
- 진짜 재밌어. 내 맘대로 이야기를 고르는 게 정말 좋아! - Anthony(9살)
-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자꾸 책을 읽고 싶어. 난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 Gabe(10살)

● 작가 소개

지은이) 새년 길리건

작가이자 게임 기획자이다. 미국 버몬트 주 워턴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새년 길리건은 「골라맨」 시리즈의 대표 작가인 R. A. 몽고메리의 부인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죽음의 잔』, 『유령의 섬』 등이 있다.

그린이) 키스 뉴튼

연극 무대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림을 그렸던 재주가 많은 화가이다.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와 『물란』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지금은 디트로이트 예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옮긴이) 신수진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어린이 책을 만들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어린이 책을 편집, 번역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림책 창작 교육과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푸른 별 아이들』, 『제비호와 아마존호』 등이 있다.